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제11호](2014.7)

서울시 용
산구 청파
동 3가
119-2 진
여원홍보팀

부산정사 봉안법요, 한여름 열기보다 뜨거운 기도 속에 개최

7월 26일 부산 신정사에서 열반부처님을 모시고 봉안법요가 개최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고온과 높은 습도로 찝통이었던 날씨는 새벽 소나기로 인해 정화됐다. 더위는 지속되었으나 바람이 불어 보다 청정함 속에서 법요는 오전 11시에 시작됐다. 3층 보전에는 400여명이 가득찼다. 넘쳐나는 교도들은 2층 어린이보전, 명상실에서 함께했다.



부산정사 보전에서의 봉안법요

봉안법요는 독경을 시작으로 개조·영조 및 두 법사님에 대한 감사의 글 헌상·헌화가 바쳐졌다. 이어 도사를 맡은 테라이스님의 말씀이 있었다. 테라이스님은 부산정사에 다녀오겠다고 종정스님께 인사드리자 종정스님은 ‘평소와 달리 “잘 되었네요”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전했다.

이는 정사 완공으로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종정스님은 미소 속에서도 엄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지금부터입니다. 화합과 우심세계 구축입니다. 특히 화합해야만 큰 힘을 발휘합니다’는 서교를 전달했다. 이어 “종정스님께서 반드시 교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오실 것이며 그 시기는 여러분의 정진, 화합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종정스님은 한국과 부산정사를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고 말씀을 주셨다. 이어 부산정사의 건립과정 소개, 건립에 공헌한 시공사, 설계사에 감사패 증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진여원 한국의 발전에 공헌이 큰 박경희 영능자에게 종정스님의 표창장이 전달되었다.

제2부 감사의 이벤트 행사에서는 국악연주, 창, 합창 등이 진행돼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또 종정스님에 대한 감사의 헌화 및 내한에 대한 뜨거운 메시지를 테라이스님을 통해 전달했다.

부산정사는 6월 17일 행정관청의 준공허가를 받고 지난 달 초순 국제부에서 최종 점검을 하여 봉안법요가 개최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다.

7월 5일 국제부장 부산정사 완공 검사

7월 5일에는 시타라 국제부장이 내한해 부산정사의 설계, 시공 및 내부 인테리어를 담당해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위로를 했다. 이날 오전 국제부장은 2시간 가량 현관에서부터 카운터, 복도, 2층 및 3층, 보전을 꼼꼼하게 둘러본 후 깔끔한 마무리작업을 부탁했다. 그 후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날은 설계사, 시공사, 인테리어, 영상시설 시공사 대표뿐만 아니라 연제구청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산포교소 폐소식 실시

연산동 신정사가 개소됨에 따라 부산지구에 위치한 부산포교소가 7월 20일자로 문을 닫았다. 그 동안 부산지역 교도들의 도량으로 역할을 했으나 늘어난 교도들을 모두 수용하기 힘들고, 주위의 열악한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26일 신정사 건립으로 이어져 결국 구정사는 문을 닫았다. 이날 11시 폐소식을 끝으로 10여년의 역사를 마무리했다.

부산정사 열반존상 한국에 도착

개조께서 직접 근각하고 종정스님께서 선택해준 등신대 크기(180cm)의 열반존상이 7월 24일 부산정사 보전 수미단에 임시 안치되고 이송독경이 행해졌다. 25일에는 열반존상이 정식으로 안치됐다.

봉안법요 이모저모

봉안법요가 개최된 26일 당일에는 아침 8시부터 교도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교도들은 깔끔하고 환하게 건립된 부산정사의 내외부를 둘러보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밝고 멋있는 도량인 줄은 몰랐다”, “이제야말로 범부모의 큰 가르침을 실천으로, 사람인으로 받을 내디딜 것을 맹세합니다” 등의 진지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개조께서 직접 근각하신 열반존상에 감격해하는 교도들이 많았다. “실물크기의 열반부처님을 모시게 되어 이제 정말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도 많았다.

특히 보전 이외에도 어린이용 보전, 상담점심실, 지류학원 수행실, 넓은 카운터, 깨끗한 식당, 밝은 복도 등이 주목받았다.

스지오야·영능자, 총본부 연수 참가

지난달 20일부터 양일간 응현원에서 개최된 세계 스지오야·영능자 연수회에 한국에서 21명이 참가했다. 이번 연수회는 국제부가 주최한 행사로서 종정스님 서교, 복건점심도량 참배, 응현원에서의 연수등이 있었다.

청년/장년, ‘부산정사’로 만든 4자 성 어(김봉준 청년 정리)

배성환 (부산)	부족한 마음을 신노엔의 이념으로 채우기 위해 산을 넘고 산을 넘는 마음가짐 으로 정진을 하면서 모두를 사랑하며 살자!	배은영 (부산)	부럽죠? 산뜻하게 정사가 부산에 건립되었어요! 사람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부 산정사 파이팅!
정남수 (부산)	부산의 명물 신노엔 부산정사!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고 깊은 정진 도량으로 거듭나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도량이 되 었으면!	윤소남 (부산)	부메랑 같은 산울림 속에 정스러운 사랑이 함께하길.
박희진 (부산)	부산 신노엔은 위대하여라! 산꼭대기 같은 목표로 정진하며 정직하고 겸손한 신노 청년으로써 사이좋은 부산 신노엔을 만들어 나 가자!	이수진 (부산)	부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은 산처럼 높디 높은 정사로 이어집니다. 사철나무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게요!
김하연 (서울)	부드러운 음률의 고레이쥬와 산들산들 시원한 바람까지 전해지 는 정사가 부산에도 생겨났으니 이거 정 말 사람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군~	배장오 (부산)	부산에도 드디어 산처럼 크고 바다처럼 넓으며 정감가는 부산정사가 장엄됩니다. 사랑합니다. 부산정사, 원하트!
김병건 (부산)	부처님께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정말로 부산에 오심을 크게 환영합니 다. 사람들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김봉준 (부산)	부처님과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가 산 넘고 바다건너 정말로 오셨네~ 사람들 모두에게 등불을 밝혀 주시 네~
최연수 (부산)	부를수록 눈물났던 '고레이쥬' 산넘어 산처럼 술한 고행 이겨 낸 '발고대수' 정말 인류구제, 우주구제의 큰 화두 아래 사람들은 망망대해 눈 먼 거북 처럼 걸음만 느리구나!	서울 청년	부럽다.. 부 산정사 정말 서울에도 새 정사가 생길 수 있다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정진하겠습 니다

박노경 / 서울 장년	부딪혀서 깨뜨려져 산산조각 업장소멸 정법호지 운명개혁 사무량심 진여일여	김형태 / 서울 장년	부처님! 부처님! 하며 산란한 마음을 기도로 집중하면 정해져 있던 어두운 운명도 사그러지고 좋게 바뀌는구나
서울 청년	부처님 경전은 왜 산스크리트어죠? 정신이 사경을 헤매네	서울 청년	부처님 되요 산다이 외우고 정진하면 사기 아님
서울 청년	부지런히 노력했지만 산더미처럼 쌓이네 정성을 다하여도 사람인도는 어렵구나	서울 청년	부처님 보려면 산이 아니라 정법호지하며 사람, 사물을 자신의 거울로
서울 청년	부산에 가면 어디를 제일 가고 싶어요? 산넘고 물건너 가니까 당연히 정말 궁금한 새로운 부산정사죠! 사람들과 그 곳에서 함께 기쁜 마음을 느끼고 싶거든요	서울 장년	부드럽고 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찰

청년·장년들, 부산정사에 대한 기대!!

부산 청년	한국의 첫 정사! 무한한 미래의 희망이 되길 기대합니다.	부산 청년	한국의 토대를 향해 나아가자!
부산 장년	대환희, 영능, 영위상승 예자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산 장년	편안한 분위기로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는 즐거운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청년	신노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의 참마음 그 참마음을 알아가는 진정한 도량으로 지켜 나아가길 빕니다.	부산 청년	부산을 토대로 전국으로,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청년	밝고 활기찬 분위기의 정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청년	아파트 단지 주위에 생겼지만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부산 장년	정사가 비좁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부산의 땅이 정화가 되어 한국이 정토가 되기를!	서울 장년	한국의 많은 분들이 부산정사에 몸을 옮겨 마음의 문을 열어 진여원 가르침이 넓혀지기를
부산 청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귀원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부산 청년회가 활성화되길!	부산 장년	한번 오신 신도님들이 끝까지 우심세계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관심을 가지길!

부산정사에 대한 청년/장년들의 각오!

부산 청년	부처님의 마음으로 저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장년	사람인도, 봉사, 보시에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장년	청년영능자와 사람인도 10~15 명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 니다.	부산 청년	사람인도에 보다 더 노력하겠 습니다.
부산 청년	영능자를 목표로 정진을 해나가 기 힘들 거라 생각하지만 포기 하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 다.	부산 청년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말을 걸 어가서 그들의 인연 업장을 소멸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 니다.
부산 장년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부산 장년	새 정사에서 새로운 각오로 많은 사람들이 우심의 세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 진 하겠습니다.
부산 청년	토대가 되어가는 것, 청년영능자 가 되는 것	부산 청년	이번 정사낙경을 맞아서 사람 인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부산 장년	집과 가까워졌으니 더 자주 와 서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 청년	부산에서 세계로 신노가족을 넓혀 가겠다.
서울 청년	모두 함께 새로운 정사에서 즐 거운 마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 록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서울 장년	진여원에 감사하며 정사에 어울리는 바른 신심으로 정진과 봉사

[청파동 칼럼] 나의 기도와 응답(박노경)



초신자 시절 “기도가 얕다” “좀 더 기도를 깊이해보세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으로는 깊이 하고 있지 않으며 실천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대승 상승 후에도 반복해서 듣게 돼 여러모로 고민해봤지만 결코 쉽지 않아 상구보리도 했다. 그러나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 어려워 ‘나처럼 머리로 하는 사람은 기도가 안되는가보다’라고 생각하며 되는데로 되어보라는 포기의 마음도 들고는 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가? 그러다가 ‘개조와 영조님, 두 법사님을 마음 속에 장엄하자’라는 생각만이라도 반복을 했다. 그러자 이후 기도가 통하기 시작했다. 자신감으로 정진을 계속하여 이제는 영능자가 됐다.

願-祈-信-喜-感-報에 대한 나의 기도 방법은 이렇게 정리가 됐다.

願(원)이란 지극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祈(기)는 기도하는 대상의 행원력, 가피력, 서원에 의지하여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信(신)은 간절하게 한결같이 일심으로 바라는 것을 기도했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을 뜻한다.

喜(희)는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感(감)은 기도한 대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報(보)는 실천으로 보답하고 자신의 공덕을 회향하는 것을 뜻한다.

바라는 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극함이 있어야 하며 대승이타의 마음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오늘은 어떤 영언을 받게 될까?’라는 가벼운 기도로는 곤란하다. 본에자에 앉을 때처럼 기도가 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깊고 계속 이어지는 삼매경이어야 한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정성이 하늘에 닿아 꿈속에서도 전달될 것이다. 이기적이거나 바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기도하고 기도의 대상이 정확해야 한다. 흔들리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 부처님, 보살님, 호법선신님께서는 어떤 가피력과 명호력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또 개조와 영조님은 어떤 행원력을 세우셨고 어떤 서원을 갖고 중생구제를 해오셨는지도 깨우쳐야 한다. 그 참마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의지해야 기도가 통한다.

이렇게 했을 때 기도의 대상이 약속한 행원력에 의해 구제의 힘이 발현된다. 이를 알고 기도했다면 이뤄질 것임을 알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내면 된다. 자식이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고 해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데 어느 부모가 들어주지 않을 것인가. 부처님, 보살님, 호법선신님이라면 더욱 확실하게 이뤄주시지 않겠는가. ‘나무 진여일여’를 향해 정진하자. 개조와 영조님의 제섭섭수, 두 법사님의 발고대수의 힘이 있는 진여원 교도는 행복하다. 감사하는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세 가지 실천을 통해 자신이 구제를 받았다면 그 보답으로 주변에 회향하는 실천을 통해 자신은 더욱 큰 구제의 힘을 받을 수 있다. “기도를 해도 효험이 없는 것은 자신의 몸과 업의 정화가 부족한 것임을 알라” “남을 구제하는 힘으로 내가 구제된다는 대반열반의 가르침은 귀하다”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침, 저녁 독경을 해야 한다. 누군가 내게 의지하여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나의 서원은?